라인 끊겨 운영 중단 짚트랙 법정 공방

고흥군 "위조된 실적증명서 제출 사기" 30억 손배 청구
짚트랙 업체 "사고 원인 특정 어려워…무리한 소송"

고흥군이 화물용 라인이 끊어져 운영이 중단된 짚트랙(공중하강체험시설)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책임소재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고흥군 영남면 남열우주발사전망대 인근에서 운영을 시작한 짚트랙은 한 달 만에 화물용 라인이 끊어지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사고가 발생한 라인은 이용객들이 착용하는 안전 장비를 회수해 이송하는 화물 전용이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고흥군은 최근 업체 측에 운영 중단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짚트랙 설치 업체와 대표 등을 상대로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

고흥군은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금 14억원을 반환하고, 설치 비용 등 16억원을 내라고 주장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짚트랙을 설치할 때 안전율이 낮게 설정됐고, 시공 중에 케이블을 과도하게 당겨서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위조된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사기에 해당한다는 법적 검토를 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짚트랙 업체는 고흥군의 소송 제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업체 대표는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이고 사고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고흥군이 사전에 협의도 없이 소송을 제기해 당황스럽다"며 "짚트랙 설계는 고흥군이 했고 우리는 시공만 했는데 설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해상 짚트랙은 지난 2020년 7월 영남면 남열우주발사전망대 인근 설치된 1.53km 길이의 짚트랙으로 30억원이 투입됐으며 민간 운영자가 운영을 맡았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곡성 햇멜론의 달콤한 유혹…대박기원 초매식

8kg 600상자 첫 출하

지난 9일 곡성멜론(주) 및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곡성멜론 판매 대박을 기원하는 초매식이 열렸다. 〈곡성군 제공〉

최상급 멜론 산지로 알려진 곡성군이 2022년도 햇멜론 출하를 알렸다.

지난 9일 곡성멜론(주) 및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곡성멜론 대박 기원 초매식을 가졌다. 올해 첫 출하는 곡성읍 대평리 박병호, 이윤배 농가에서 이뤄졌다. 양 농가는 올 1월 말 보온 시설과 난방 시설을 갖춘 시설하우스에서 얼스 계통 'PMR 춘추보스' 품종을 정식해 이번에 8㎏ 단위 약 600상자를 출하하게 됐다.

곡성멜론은 섬진강의 맑고 깨끗한 환경과 일교차가 큰 기후,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으로 인해 맛이 깊고 향이 진하다. 여기에 40년의 생산 및 재배기술이 더해져 최상급 멜론이 생산된다. 현재 군에서는 324농가 135㏊에서 멜론을 재배하고 있다. 계획 생산, 공동 선별 및 공동 출하를 통해 '둘레 50㎝, 무게 2㎏' 가량의 균일한 품질과 맛을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전국 대형 백화점이나 유명 호텔, 유명 프랜차이즈 설빙에서도 곡성멜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기차타고 멜론마을' 브랜드로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에서 대통령상, 세계농업기술상 수출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0년 8월에는 집중호우와 섬진강 범람 등으로 인해 곡성 멜론 농가들은 큰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하지만 농민들의 뜨거운 땀과 섬진강의 건강한 생명력은 곡성멜론을 다시 싹틔우게 했다. 군에서도 비파괴 공동 선별기, 유통 물류비, 수출 물류비, 포장재 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멜론 생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현재 군에서는 곡성멜론으로 음식, 가공, 체험 등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복합산업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1월 '멜롱살롱'이라는 체험형 테마카페를 조성해 멜론 음료와 다채로운 체험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제철에 나는 햇멜론을 집 안에 보관하면 집 안 전체가 달콤한 향으로 가득찰 만큼 향과 맛이 좋다"며 "싱그러운 봄의 초록을 닮은 멜론으로 입 안 가득 행복감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닭요리 고수들의 경연 '순천미식대첩' 열린다

6월 17일까지 개최

순천시는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에게 인기 있는 닭을 주제로 제7회 순천미식대첩을 6월 1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미식대첩은 닭구이와 기타 닭요리 2개 부문으로 나눠 순천 최고의 닭요리 맛집을 선정하는 음식 경연대회로, 프렌차이즈점을 제외한 지역 내 음식점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오는 20일까지 음식 설명서와 완성사진을 포함한 참가신청서를 순천시 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부문별 10개팀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평가 상위 음식점에는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순천 대표음식점으로 지정해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미식대첩은 순천의 계절별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 순천을 역사문화도시이자 생태미식도시로 홍보하고자 2018년 시작, 올해 7회째 개최하는 음식 경연대회다. 지난해까지 한정식을 포함한 9개 경연주제로 개최해 99개 음식점을 선정, 현판을 부착하고 순천 최고 맛집으로 홍보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계절별 지역농산물이 다양하고 먹거리가 풍부한 미식도시임이 그동안 순천미식대첩 및 전국음식경연대회를 통해 입증되었다"며 "2023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순천을 찾은 방문객이 순천의 맛을 잊지 못해 다시 또 순천을 찾을 수 있도록 음식관광 순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여수시 주·야간 겸용 임시 공영주기장.

낮에는 주차장, 밤에는 건설기계 주기장

여수시 성산공원·돌산 진모지구 등
전국 최초 공영 주기장 40면 조성

여수시가 주간에는 주차장, 야간에는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삭기 등) 주기장으로 겸용해 사용하는 공영주기장 40면을 전국 최초로 조성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성산공원 주차장에 15면, 이순신공원 주차장에 15면, 돌산도 진모지구 주차장에 10면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무료로 개방한 공영주기장 86면과 합쳐 총 126면의 건설기계 주기장이 운영돼 주차민원 해소와 대기오염 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임시주기장 운영으로 영세 건설기계 사업자의 주기 공간 확보와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하반기부터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주기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말 기준으로 여수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대수는 총 3250대이며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4000대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홀몸 어르신들 자녀 빈자리 채워드립니다

보성군 율어면희망드림협의체
50여명에 김치 등 밑반찬 봉사

보성군 율어면희망드림협의체(공동위원장 임병하·김명섭)가 최근 율어면 여성자원봉사회(회장 김영희)와 함께 지역 홀몸 어르신 등 50명에게 김치 등 밑반찬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실 홀몸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자녀들의 빈자리를 채워드리고자 나눔 활동으로 진행했다.

사업을 주관한 율어면희망드림협의체 김명섭 공동위원장은 "기나긴 코로나19 상황에서 심적으로 고생하셨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먼저 살피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율어면희망드림협의체에서는 '눈애(愛)띠네! 행복애(愛) 나눔'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민관 협력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역 내 나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